

무등산 절경 가상현실로 즐긴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장애인 등 보행약자 위해 360도 입체영상 체험 가상현실 서비스 운영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무등산 백마능선의 구름' 가상현실(VR) 입체사진. 공단은 무등산 등 전국 12개 국립공원 44개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고령자 등 보행약자들이 산을 오르지 않고도 무등산 국립공원 절경을 가상현실로 즐길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장애인, 고령자 등 보행약자를 위한 '국립공원 가상현실 서비스'에 무등산국립공원 등 새로운 영상 10개를 추가하여 확대 운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국립공원 가상현실 서비스'는 국립공원의 주요 명소에 대한 360도 입체영상 체험을 제공해 실제 국립공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생생한 간접 체험이 가능하다

공단은 올해부터 무등산·북한산·계룡산 등을 추가해 설악산 가상현실(2015년 시범제작), 지리산·한려해상·변산반도·소백산(2016년 제작), 경주·내장산·덕유산·오대산(2017년 제작) 등 12개 공원 44개 가상현실 영상을 서비스한다.

올해 새롭게 제작된 곳은 무등산국립공원의 대표적인 2개의 폭포인 시무지기폭포·용추 폭포와 지난 2005년에 천연기념물 제465호로 지정된 주상절리대이다.

이 밖에 계룡산국립공원의 갑사·관음봉·운선폭포, 북한산국립공원의 백운대·선인봉·송추계곡 등으로 도심 속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경관들도 추가됐다.

영상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없고 출입이 제한된 장소와 야생·일몰·무인기로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 바람에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 등이 담겨져 있다.

'국립공원 가상현실 서비스'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와 스마트폰 앱에서 '국립공원 가상현실'이나 '국립공원공단'를 검색해 내려받거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등을 이용하면 된다.

무등산·계룡산·북한산·오대산·설악산·내장산·한려해상·소백산 등 국립공원 탐방 거점 시설에 설치된 기기를 통해서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은 사회적 약자나 격오지에 사

는 학생 등 국립공원을 방문하기 힘든 시민들을 상대로 국립공원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기가 설치된 '국립공원 이동탐방 안내소'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손영민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 "앞으로도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을 적극 도입해 첨단 디지털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되는 영상 10개 중 9개는 국립공원의 주요 명소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VR 가상탐방 영상'이다. 나머지 1개의 영상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간접 체험해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VR 심리안정 영상'이다.

'VR 심리안정 영상'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민영 박사의 자문을 받아 제작됐으며 자연의 소리, 차분한 음성해설을 들으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간접 체험으로 지친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미세먼지 문제 해결 위해 내 남은 인생 기꺼이 헌신하겠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 본격 활동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반기문(사진)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각계각층 국민 의견을 수렴해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반 위원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공익에 기여하는 생을 살아온 제가 다시금 범국가적인 과업을 완수하라는 부름을 받았다"며 "내 남은 인생을 기꺼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반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유엔 사무총장직에 오르는 영예를 누렸다"며 "미세먼지 해결을 국민들께서 제게 주신 저의 마지막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각오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OECD 회원국 도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100개 도시를 추진 결과 한국 도시 44곳이 포함됐다는 최근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아무리 중국, 인도 등이 빠진 통계라고는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충격을 받았다. 국가적인 위기"라고 토로했다.

반 위원장은 "전 국민 개개인이 습속한다"며 "이제는 '내가 손해다', '우리 산업계가 손해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 42명 중에는 정당 추천 인사 5명도 포함되지만, 최근 국회 대치 상황으로 인해 아직 위촉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에 여야가 어디 있다. 여야 모두 공기는 마셔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내가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전세계 비판을 받았다. 단련이 돼 있다"며 "비판은 내가 모두 받았으니 그야말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미세먼지 감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우리 기구는 단계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히 시행할 방안 논의에 중점을 두겠다"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 등 이웃 나라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상호 간에 실질적 이익이 되려면 먼저 국내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다음 달 중 500명으로 이뤄질 국민 정책참여단 구성에 착수해 국민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갖출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들은 뒤 속의 과정을 거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가 오기 전에 정책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규모 핵사고 일어나기 전 핵발전 멈춰야” 체르노빌 33주기 ‘핵발전소 없는 한국’ 촉구

지역탈핵단체들 성명 발표

지역탈핵단체들이 옛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3주기를 맞아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촉구했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환경운동연합·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19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준)은 지난 26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로 이어진 핵발전소 사고의 비극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같은 대규모 핵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핵발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3년 전인 1986년 4월 26일 일어난 옛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암 등 건강 문제, 토지·농수산물 오염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와 핵산업계는 핵발전소를 늘려오며 핵발전의 비극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영광 한빛원전은 시험성적서 위조, 엉터리 케이블·부품 납품 등 비리가 드러나고 콘크리트 격납건물과 격납철판에서 대규모 구멍이 발견됐다"며 "최근에는 핵발전소가 밀집된 동해안에



서는 연일 지진이 일어나며 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인류 전체에게 뼈아픈 교훈을 안겨줬다"며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와 부실시공 한빛핵발전 4호기를 조기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내장산국립공원 봄 주간 행사

11일까지 장성 백양사 일원 클래식 무대·시낭송 등 다채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사무소는 "오는 11일까지 장성 백양사 일원에서 국립공원 봄 주간행사를 운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국립공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다채로운 체험과 탐방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기간 백양사 일원에서는 클래식 무대와 시낭송 등 탐방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노윤 내장산국립공원백양사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 신록과 여유러지는 다채로운 행사로 탐방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하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남구 봉선동(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405㎡(122.51평) 건물 : 551.94㎡(166.96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8억5천 상가,교회 이용적합, 다가구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1686.50㎡(510평) 건물:3,000.80㎡(907.74평)
지상2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 (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55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434.44㎡(131.4평) 건물: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55억
이마트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삼거동
토지:4556㎡(1378평) 건물: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40억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5700㎡(1700평) 건물:6500㎡(1900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130억
건물2동, 신발적용 350베드 가능 요양원 40베드 별도, 주차장넓음

토지

- ★ [토지] 광주 북구 각화동(일반상업지역)
토지:1540㎡(465.85평) 건물:650.94㎡(196.91평)
매매가:80억 도로점, 투자적합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 토지:5,385㎡(1629평) 매매가:60억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분할가능
- ★ [토지] 여수시 주삼동 - 토지:9,157㎡(2770평) 매매가:50억
주동사거리 메인코너 위치
- ★ [토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경매

- ★ [의료시설]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토지:1806.2㎡(546.4평) 건물:2842.87㎡(860평) 감평가 42억6천4백만원 최저가(80%) 34억1천만원
- ★ [의료시설] 함평군 월야면 월거리 대지:11139㎡(3369.5평) 건물:5530.56㎡(1612.5평) 감평가 40억3천5백만원 최저가(70%) 28억2천4백만원
- ★ [근린주택] 목포시 옥암동 토지 : 555.7㎡(168.1평) 건물 : 1210.35㎡(366.1평) 감평가 15억9천8백만원 최저가(70%)11억1천8백5십만원
- ★ [숙박시설] 광산구 우산동 대지:627.8㎡(189.9평) 건물:2122.01㎡(641.9평) 감평가 35억7천만원 최저가 25억
- ★ [양계장] 함평군 월야면 양정리 대지:136695.78㎡(41350.5평) 건물:24737.02㎡(7482.9평) 감평가 62억7천2백만원 최저가(56%) 35억1천만원
- ★ [공장용지]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토지 : 37599㎡(1137.1평) 건물 : 2040.5㎡(617.3평) 감평가 14억8천8백만원 최저가(70%)10억4천2백만원

“상무지구·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